

프로야구 9구단 창단 엔씨소프트 오늘 신청

KBO 이사회 내일 논의

프로야구 아홉 번째 구단 출범을 선언했던 온라인 게임 전문기업 엔씨소프트가 창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9일 「엔씨소프트가 10일 창단 신청서를 내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통합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9번째 구단 창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엔씨소프트의 프로야구 신생팀 출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KBO는 11일 오전 9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8개 구단이 사장이 참석하는 이사회를 열어 9, 10번째 구단 창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야구규약 제8조(구단 신설 가입)에 따라 ▲보호지역을 명기한 신규 가입 신청서 ▲대표자 또는 대표법인의 재정

상황 증빙자료 ▲운영 계획서 ▲정관 및 규약 준수 서약서 ▲대표자의 경력 등 창단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그러나 창단에 관심을 둔 나머지 2개 기업이 이사회 전에 신청서를 낼지 아니면 이사회 때 창단 계획을 밝힐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KBO는 일단 아홉 번째 구단 창단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엔씨소프트 등 3개 기업 중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한 곳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회원 가입을 허락할 예정이다.

이후 번째 구단으로 승인된 기업은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액의 기입금을 내야 하며 2년간 신인선수 우선 지명권과 각 구단 보호 선수 20명에 한 명 지명 등 혜택을 받는다.

한편 창원시는 아홉 번째 구단을 유치하면 기존 마산구장을 리모델링해 쓰도록 하고 신설구장 완공 후 최대 25년까지 야구장을 장기 임대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연합뉴스



팬들과 함께 희망 드리블

광주 FC가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소총동 공무원 교육원에서 구단주인 강운태 시장과 박병모 단장, 여자축구동호회 핑클, 서포터즈, 광역중·광주 대 축구부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광주 FC 희망드리블」 행사를 열고 2011시즌 선전을 기원했다.

(광주FC제공)

에반 고공독주... 대한항공 10승 선착

서브·리시브·공격 완벽 조화, 현대 캐피탈 3대0 완파

프로배구 남자부 선두를 달리는 대한항공이 「미리보는 챔피언결정전」에서 2위 현대캐피탈을 완파하고 시즌 10승 고지를 밟았다.

대한항공은 9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0-2011 프로배구 정규리그 경기에서 서브 득점 5점을 포함, 24점을 쏠아부은 외국인 거포 에반 폐이택을 앞세워 현대캐피탈을 3-0(25-16 25-21 25-19)으로 꺾었다.

대한항공은 강력한 서브와 안정적인 리시브, 정확한 공격이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1-2 위 팀간 맞대결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었다.

1라운드에 이어 문성민이 돌아온 2라운드에서도 현대캐피탈을 물리친 대한항공은 시즌 10승(1승)을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굳게 지켰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거포 헤터 소

토가 발목 부상으로 빠진데다 중요한 순간에 범실이 이어지면서 대한항공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한항공은 1세트 에반의 강력한 서브와 후위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김학민(12득점)이 속공으로 힘을 보태면서 먼저 웃었다.

9-6으로 앞서던 대한항공은 문성민과 후인정의 공격이 살아나면서 14-13까지 훈쳤으나, 이영택과 에반, 김학민의 속공이 잇따라 터져 접수 차를 벌렸다.

에반은 1세트에만 서브 에이스를 2개나 성공하는 등 위험적인 강서브로 현대캐피탈의 리시브를 흔들어 초반 분위기를 대한항공 쪽으로 틀고 왔다.

2세트에서 양 팀은 서브 득점을 주고받으면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으나 대한항공이

서브에서 우위를 보이며 다시 세트를 따냈다.

현대캐피탈은 에반의 잇따라 공격 범실을 저지르면서 13-12로 역전에 성공했고, 문성민이 대포랄 서브로 연속 에이스를 기록하며 15-12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문성민의 서브 범실에 이어 이선규의 개인시간과 공격이 아웃되면서 기회는 다시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갔고, 한선수가 서브 에이스로 응수하면서 순식간에 15-15 동점을 만들었다.

에반은 20-19로 근소한 리드를 지킨 상황에서 코트 오른쪽 구석을 치르는 서브 득점으로 승기를 가져왔고, 이어 이영택이 다이렉트 퀄을 성공하면서 22-19로 끌어왔다.

현대캐피탈은 3세트 초반 주상용과 한상길이 분위기 메이커로 나서면서 반격을 시도했지만 에반의 독무대에 무릎을 끊었고, 20-19로 승리를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국제심판 출신 천경태씨

전남 배구협회장 취임

국제 심판 출신의 천경태(69)씨가 제 13대 전남 배구협회장에 취임했다.

천경태 회장이 7일 목

포 양그리아호텔 8층 연회장에서 열린 전남배구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천 회장은 여수여고 교장을 지낸 교육자 출신으로 전남배구협회 이사 등을 지냈으며 광주·전남지역 「국제심판 1호」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22년부터 9년동안 협회장을 이끌어온 이호균(50) 회장은 전남도의회장에 피선되면서 회장직을 사퇴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재순 광주시청 양궁감독

국가대표팀 코치 선임

박재순 광주시청 양궁 감독이 국가대표팀 코치에 선임됐다.

지난 7일 대한양궁협회가 오는 7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국가대표팀을 지도할 감독과 코치를 발표했다.

순천고 출신의 장영술 현대제철 감독이 총감독에 선임됐으며, 백승기 감독(여주군청)과 박재순 코치(광주시청)가 여자팀을 맡는다. 오선택 감독(LH양궁단)과 박성수 코치(인천계약구청)는 남자팀을 지휘한다.

건강문제로 광주우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던 박재순 감독은 1999년 주니어 국가대표 코치 이후 처음으로 성인대표팀을 맡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KIA 선수들 오늘은 웨이터로... 판매원으로...

트병 김동재 코치 돌기
일일 호프 성황리 마쳐

「국가대표 에이스 윤석민과 단돈 만원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막 사인한 뒤 뜯어내 한 사인볼도 판매합니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지난 8일 방방이와 글러브 대신 생반과 기념품을 들었다. 김동재 코치 돌기 일일호프와 기념품 판매행사가 열리면서 선수들이 웨이터와 판매원으로 변신한 것이다. 〈사진〉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일일호프는 준비된 맥주가 등이 날 정도로 많은 팬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한겨울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사인회와 기념품 판매코너에도 팬들의 발길이 계속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 최고참 이종범(41)에서부터 루키 흥건희(19)까지 KIA 모든 선수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손님맞이와 안내, 서빙, 테이블 정리까지 KIA 선수들이 일일호프의 진행을 도맡아 했다.

선수들의 노력과 팬들의 관심 속에 이날 일일호프과 기념품 판매, 모금을 통해 1500만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

선수단 상조회장인 최희섭은 「이렇게 많은 팬들이 찾아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팬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김동재 코치님이 분명 휴유하실 것이다」며 「너무 많은 팬들이 찾아 어쩔 수 없이 4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족했던 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

KT, 통신 라이벌 SK에 압승

프로농구 부산 KT가 서울 SK와 「통신 라이벌」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새해 첫날부터 전자랜드에게 진 뒤 3경기 연속 패했던 SK는 안방에서 다시 고배를 맞아 4연패의 높으로 빠져들었다.

원주 동부는 대구 오리온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81-64로 승리하며 세번째로 20승(9패) 고지를 밟고 전자랜드에 이어 3위 자리에 유지했다.

원주 동부는 21점 3리바운드로 앞섰고 박상오는 15점 7리바운드로 보탰으며 찰스 로드는 11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제스파 존슨은 9점, 송영진은 8점을 거두었다. 지난 7일 10개 팀 가운데 가장 먼저 20승 고지에 오른 KT는 이날 승리로 21승째

(8패)를 챙기면서 경기가 없었던 인천 전자랜드(20승 8패)를 따돌리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새해 첫날부터 전자랜드에게 진 뒤 3경기 연속 패했던 SK는 안방에서 다시 고배를 맞아 4연패의 높으로 빠져들었다.

원주 동부는 대구 오리온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81-64로 승리하며 세번째로 20승(9패) 고지를 밟고 전자랜드에 이어 3위 자리에 유지했다.

원주 동부는 21점 3리바운드로 앞섰고 박상오는 15점 7리바운드로 보탰으며 찰스 로드는 11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제스파 존슨은 9점, 송영진은 8점을 거두었다. 지난 7일 10개 팀 가운데 가장 먼저 20승 고지에 오른 KT는 이날 승리로 21승째

프로농구 남자부 단독선두

여자부선 신세계 3위 도약

앞서 경남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 안양 한국인삼공사의 경기에서는 인삼공사가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는 접전 끝에 83-80 역전승을 거두며 7연패에서 탈출했다.

여자부에서는 부천 신세계가 춘천 우리은행에 2연패를 안기며 기분 좋은 역전승을 챙겼다. 신세계는 9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치러진 우리은행과 원정경기에서 24점을 쏟아낸 김정은의 활약을 앞세워 62-5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신세계는 2연승과 더불어 10승10패를 기록하며 KDB생명과 동률을 이루고 공동 3위로 한 계단을 올랐다. /연합뉴스

KT, 월드컵·올림픽·다시 대회... 대한항공 10승 선착

프로농구 부산 KT가 서울 SK와 「통신 라이벌」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새해 첫날부터 전자랜드에게 진 뒤 3경기 연속 패했던 SK는 안방에서 다시 고배를 맞아 4연패의 높으로 빠져들었다.

원주 동부는 대구 오리온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81-64로 승리하며 세번째로 20승(9패) 고지를 밟고 전자랜드에 이어 3위 자리에 유지했다.

원주 동부는 21점 3리바운드로 앞섰고 박상오는 15점 7리바운드로 보탰으며 찰스 로드는 11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제스파 존슨은 9점, 송영진은 8점을 거두었다. 지난 7일 10개 팀 가운데 가장 먼저 20승 고지에 오른 KT는 이날 승리로 21승째

현대공인증개사

토지 금 매매

▶ 서구 마륵동, 생산동지, 3002㎡(908평), 매매가 15억원대출, 능협7억 김대중컨벤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4,784평) 전용 되어있음, 건축물 637.46㎡(192.83평), 현재 썰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790㎡(824평)

<p